

주인공은 ‘포카리 박’ 이었다

(끝내기 순간 제일 먼저 물 세러모니)



지난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9회말 5-5 동점인 1사 2루 상황에서 KIA 박기남(왼쪽 두번째)이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거둔 뒤 동료들의 물세례 축하를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 박기남, 주말 한화전 9회말 생애 첫 끝내기타

“수비 실수 만회 기쁨”...이대형, 개인통산 400도루

‘포카리 박’에겐 최고의 순간이었다. KIA 박기남에게는 여러 가지 수석이 있다. 뛰어난 선구안 덕에 ‘매의 눈’이라는 수석이 따라다니기도 했고 전천후 내야수로 최고의 백업으로 활약하며 소금같은 선수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익숙한 별명은 ‘포카리 박’이다. 이 은 유포수에서 탄 별명, 팀의 승리의 순간 특히 끝내기 순간에 유포수를 들고 가장 먼저 뛰어가 ‘물 세러모니’를 하면서 얻게 된 애칭이다.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도 가장 뜨거운 벤치 멤버로 팀을 응원했던 그는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 나왔을 때 눈물로 유포수를 뿌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먼저 유포수를 들고 나가 승리의 세러모니를 했던 박기남이 생애 처음으로 주인공이 됐다. 박기남은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5-5로 맞선 9회 1사 2루에서 정대훈

을 상대로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때려내며 끝내기 승을 완성시켰다. 늘 유포수를 들고 그라운드로 달려가는 입장이었지만 박기남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동료들을 맞이하며 활짝 웃었다. 올 시즌 나온 23번째 끝내기 안타는 박기남 생애 첫 끝내기 안타였다. “팀이 어려운 시기라서 잘하고 싶었다. 우천순 연이 깊어져서 감이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지고 있다가 역전됐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길 수 있었다”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린 박기남은 “매번 축하만 하다가 이렇게 축하를 받게 되니까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앞선 나지완의 역전 홈런이 있기도 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극적인 주인공이 된 박기남. 마지막 타석이 더 간절했던 이유가 있다. 박기남은 “수비에서 실수가 있었다. 내가 순간

못 움직이면서 잡을 수 있는 것을 못 잡았다. 앞에서 계속 (김)주찬이가 살아나갔는데 팀배팅이 안 돼서 마음이 쓰였다. 변화구 승부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상대 투수 제구가 좋지 않길래 직구를 노렸다. 맞기는 잘 맞았는데 정면 타구라서 마음을 줄이기는 했다”고 자신의 첫 끝내기 상황을 얘기했다. 한편 이날 누구보다 각별하게 박기남의 생애 첫 끝내기를 축하해준 한 사람, LG에서 박기남과 한 술밥을 먹었던 이대형도 지난 주 특별한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이대형은 지난 22일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7회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2루를 홈치며 개인 통산 400도루를 채웠다. 2002년 전주호(전 히어로즈), 2003년 이종범(전KIA), 2005년 정수근(전 롯데)에 이은 역대 4번째 대기록이다. 현역 선수로는 유일하게 400도루를 넘긴 ‘대도’가 됐다. 이대형은 “우리나라에서 4번 밖에 나오지 않은 기록이라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열심히 뛰었던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개점휴업 KIA “쉬어도 너무 쉽다”

덕아웃 특·특·특

▲“캠 온 것 같아요.” 훈련이 끝나고 덕아웃에 들어온 나지완이 “힘들다”를 연발했다. 지친 얼굴의 나지완은 “캠프에 온 것 같다”며 물을 찾았다. 한화와의 주말 2연전에 대비한 KIA 선수단의 훈련은 캠프 스케줄처럼 빈틈없이 돌아갔다. 매 경기 중요 승부 싸움 속, 잇단 비에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만큼 기본을 강조한 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캠프 때처럼 내·외야 전 포지션 선수들이 수비 훈련을 진행했고, 번트 훈련도 이어졌다. 외국인 선수 필의 번트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어이 마지막 투수.” 프로야구의 레전드 장종훈 한화 코치가 자신의 현역 시절 마지막 상대 투수를 챌린저스 필드에서 재회했다. 주인공은 KIA에서 뛰었던 홍익대 정원 투수코치.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정 코치는 챌린저스필드를 찾았다가 장 코치와 마주쳤다. “마지막 투수!”라는 말로 반

갑게 정 코치를 맞아준 장 코치. 2005년 9월15일 장 코치는 KIA를 상대로 은퇴 경기를 치렀다. 이날 두 타석에 들어섰던 장종훈은 2회에 이어 4회 KIA의 바뀐 투수 정원과 승부를 했다. 결과는 3루 땅볼. 전설의 마지막 스윙이었다. 정 코치는 “선배님 은퇴경기 때 내가 마지막 상대였다. 그날 내가 승리투수도 됐다”고 회상했다. ▲“너무 쉬어.” KIA 투수들이 강제 실직 상태가 됐다. 비가 쏟아지다니면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날짜들이 늘어가고 있다. 24일 한화와 홈경기도 우천 취소되면서 지난 주 KIA는 단 두 경기를 소화하는데 그쳤다. 23일 선발이었던 양현종은 삼삼과의 경기 두 차례 밀리면서 11일 만에 한화를 상대했다. 24일 선발로 예고됐던 임준섭은 25일 경기가 진행되면 12일 만에 등판을 하게 된다. 선동열 감독은 쉬어도 너무 쉬었다며 투수들의 경기 감각을 걱정했다. 지난 7일 SK전이 마지막 등장이었던 신창호는 “요즘 훈련 보조를 하고 있다”며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

14승 사냥 채비 끝

류현진, 30일 뉴욕 메츠전 출격

영당이 부상으로 재할 중인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 등 재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예정대로 복귀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는 24일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팅리 감독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뉴욕 메츠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류현진의 복귀)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매팅리 감독은 “어떠한 차질도 없다”면서 “류현진의 몸 상태는 좋으며 (공을 던지는 횟수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류현진이 재활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어느 시점에서 류현진은 마운드에 올라가 공을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지난 1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회초 B. J. 엡튼을 상대하다 오른쪽 영당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자진 교체됐다. 정밀검사 결과 오른쪽 영당의 중둔근(Gluteus Medius)과 이상근(Piriformis)에 염좌가 발견돼 부상자 명단에 오른 류현진은 다저스가 부상자 명단 등재일을 15일 자로 소급해 이르면 30일 복귀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한국 리틀야구, 29년만의 기적

日 12-3 꺾고 월드시리즈 결승 진출...미국과 결승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이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또 한 번 누르고 제68회 세계리틀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2회 일본 선발 후지마쓰 조이치로가 흔들리는 틈을 타 7점을 뽑으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일본은 4회 1점, 5회 2점을 내며 추격에 나섰으나 점수 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6회 한상훈의 솔로 홈런으로 일본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한국은 최해찬과 신동원이 각각 4타수 2안타 3타점을 때려내며 승리에 앞장섰다. 선발 황재영이 2이닝 동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데 이어 김동혁, 유준하, 최해찬도 3점만 내주며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년 우승 이후 처음으로 이 대회 본선에 진출한 한국은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한국은 2회 일본 선발 후지마쓰 조이치로가 흔들리는 틈을 타 7점을 뽑으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일본은 4회 1점, 5회 2점을 내며 추격에 나섰으나 점수 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6회 한상훈의 솔로 홈런으로 일본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한국은 최해찬과 신동원이 각각 4타수 2안타 3타점을 때려내며 승리에 앞장섰다. 선발 황재영이 2이닝 동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데 이어 김동혁, 유준하, 최해찬도 3점만 내주며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